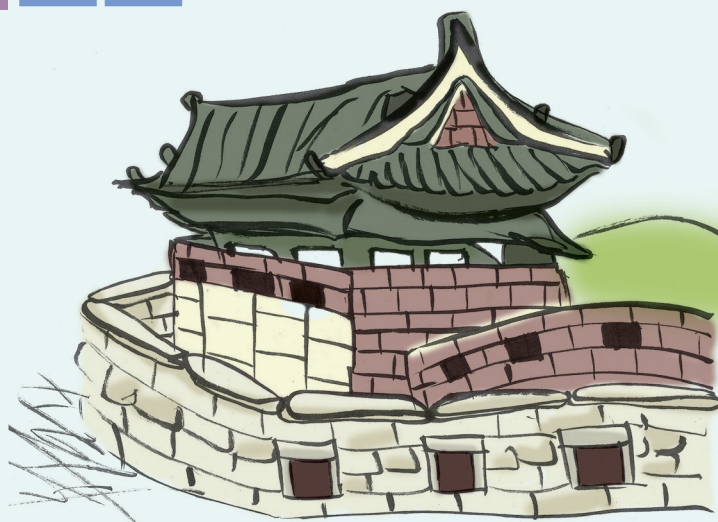


# 세계인의 유산, 도민의 자긍심으로 보살펴야



노중국 \_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단 위원장,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2015년 7월 4일 독일 본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로 결정하였다. 백제역사유적지구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진정성과 완전성을 세계가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백제 유산은 이제 대한민국의 사적에서 세계인이 함께 아끼고 사랑하고 향유하는 세계유산이 되었다.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충청남도, 전라북도,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는 등재추진단을 만들어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였다. 사무국 직원들과 학예연구사들은 밤샘을 하면서 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 :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도출하고 진정성과 완전성을 규명하여 등재신청서를 작성하고, 보존관리 계획 마련에 온 힘을 쏟았다. 공주, 부여, 익산의 시민단체들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유산의 보호와 홍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다. 그 결과 1994년 무령왕릉을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올린 이후 21년 만에,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이 만들어져 본격적으로 등재 추진 작업을 한 지 만 3년 만에 이러한 쾌거를 이루어낸 것이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2개의 도(충남과 전북)와 3개의 시·군(공주시, 부여군, 익산시)에 걸쳐있는 연속유산을 말한다. 여덟 개의 유산은 공주시의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과 부여군의 관북리 유적과 부



소산성, 정림사지, 능산리 고분군, 나성 그리고 익산시의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이다. 그 성격은 고고학적 유적지이지만 이 백제유산은 과거의 것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축제를 통해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의 정체성 확립과 역사 계승 의식 속에서 되살아나고 있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고대 동아시아에서 백제역사유적지구가 보여주는 건축물과 건축 기술의 발전을 가져온 교류는 백제의 성곽 건축, 왕릉, 석탑, 건축물의 기단에 잘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교류를 중시하는 평가 기준 (ii)를 충족시켰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도시 계획, 지형적 환경, 건축물과 기술들은 유적의 규모와 유형에 의해 증명되며, 백제왕조의 독특한 문화, 역사, 종교와 예술의 뛰어난 증거를 보여준 것이다. 이는 평가 기준 (iii)을 충족시켰다. 또 백제역사유적지구는 문화재 보호법과 고도보존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으로 보존 관리되고 있다.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이 됨으로써 대한민국은 문화 강국의 이미지를 높였다. 경주의 신라 유산, 집안과 평양의 고구려 유산과 함께 삼국 문화 모두가 세계유산이 되어 우리나라 삼국 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었다. 공주, 부여, 익산은 세계유산을 보유한 도시로서의 위상을 가지게 되었고, 도민들과 시·군민들은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이 유산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여 길이길이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남아 있다. 이 의무의 수행은 이제 정부, 지자체와 더불어 도·시·군민들의 몫이다. 따라서 백제세계유산센터를 중심으로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한 통합적인 보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백제학연구센터를 설립하여 백제유산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를 더욱 활성화해야 하며 교육 기관은 후속 세대들이 백제 유산의 가치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 교육해야 할 것이다. 다섯 지자체는 백제 유산을 중심축으로 하는 공동의 축제를 통해 연대 의식을 높이고 홍보를 극대화하고, 도시의 모습이 유산과 잘 어울리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동시에 도·시·군민들은 백제 유산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들을 따듯이 맞이하고 깊은 감명을 받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세계인들이 가장 찾아가 보고 싶은 유산이 될 것이며 충남도와 전북도 그리고 공주·부여·익산은 세계유산을 잘 보호하는 품격 높은 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도, 시·군민들이 마음과 뜻을 함께하여 이 유산을 잘 보살피고 널리 알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본다. ◀